



**서들록 향연** 제12회 광주세계대학선수권대회 6일 여자주중합체 육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단체전 예선을 치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배드민턴에 빠지다

### 2012 광주세계대학선수권 열전 돌입 한국, 한 수 아래 스리랑카 5-0 제압

18개국 대학 배드민턴 선수들의 열전이 시작됐다.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의 개막식이 6일 오후 2시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배드민턴 축제를 위해 1000여명의 남구 주민 오카리나합주단이 '아리랑, 아름다운 것들' 연주를 선보였고, 시립국극단의 창작 국악 축연무와 민요메들리와 팡페라 가수 채미영의 공연과 함께 개최식의 막이 올랐다.

강은태 배드민턴선수권대회조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프레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닌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자, 인류 평화를 노래하

는 '화합의 장'으로 준비했다"며 "선수단 모두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대표 앨리슨 오델(Alison Odell)은 대회사에서 "한국 현대 민주화운동의 산실인 광주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2014 FISU포럼과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지역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FISU 행사는 유니버시아드 개최 전과 개최 중 그리고 개최 후까지 이어지는 유니버시아드의 유산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24·경기대)는 선수대표로 나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졌었다.

개회 선언 이후에는 '빛고을 유망단'의 퓨전 공연이 펼쳐지면서 흥겨운 무대가 연출되기도 했다.

본격적인 경기 일정도 시작됐다.

오전 9시 중국-홍콩, 일본-남아공, 한국-스리랑카, 대만-스페인의 단체전 예선전을 시작으로 스매시 대결의 막이 올랐다.

한국은 한 수 아래 전력의 스리랑카를 상대로 5-0 완승을 거두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스리랑카, 영국과 함께 C조에 속한 한국은 7일 오전 9시 영국과 단체전 예선전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 한국을 비롯해 중국, 홍콩, 러시아, 일본, 남아공, 캐나다, 스리랑카, 영국, 대만, 스페인,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호주, 우간다, 네팔, 인도 등 18개국 173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대회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며 단체전과 개인전 6개 종목(남·여 단식, 남·여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의 승자가 가려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코트 안이나 밖이나 이용대는 슈퍼스타

### 오늘 영국과 단체전 출전

'금빛 윙크' 이용대의 인기가 코트 안팎을 가리지 않고 뜨겁다.

2012 광주세계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6일 막이 올랐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위해 꼼꼼하게 경기장 시설을 점검하고 1500여명의 자원봉사단을 꾸리는 등 만전을 기했다.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한 야심찬 카드가 하나 또 있다. 바로 국가대표 이용대다.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흥행과 수준높은 플레이를 위해 스타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귀하신 몸' 이용대의 출전을 위해 공을 들었다.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를 위해 이용대는 경기대 학생으로 기꺼이 발길을 뒀다.

국가대표 이용대가 뜨면서 경기장도 뜨겁다.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개최식의 최고 인기스타는 역시 이용대였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은 이용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하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개회식 절정은 이용대의 선수단 선서



선수대표로 선서하는 이용대

였다. 선서를 끝낸 이용대가 팬들을 위해 손을 흔들자 인기스타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용대의 인기는 코트 안에서도 심심치 않다. 대회에 참가한 각종 선수들에게도 이용대는 인기만큼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선수단 입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용대는 휠체어가 쏟아지는 사진촬영 요청에 각종 선수들과 포즈를 취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용대는 "많은 분들이 사진촬영을 요청해서 정신이 없다"고 웃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는 아무래도 더 신경을 게 많다.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경기에도 집중해야 하고 바쁘다. 하지만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좋은 경기를 하고 갔겠다. 많이 오셔서 응원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대회 2관왕(단체전·개인전)에 도전하는 이용대는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영국과의 단체전 예선전을 시작으로 실력발휘에 나서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FA 시장 열린다

홍성흔·이진영 등 총 21명  
KIA 유동훈·김원섭·이현곤

프로야구 자유계약(FA)시장이 10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을 끝으로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 명단을 6일 공식했다.

KIA 유동훈·김원섭·이현곤과 함께 정현욱(삼성), 박경완·권용관·이호준(이상 SK), 강영식·홍성흔·김주찬(이상 롯데), 김수경·강귀태·송지만·강병식·이정훈(이상 넥센), 이대진·손인호·정성훈·이진영·김일경(이상 LG), 한화 마일영 등 총 21명이다.

이중 각각 한화와 넥센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이대진과 김수경을 제외하면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9명이다.

FA 계약을 원하는 선수는 8일까지 KBO

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9일 FA 승인 신청선수가 공식된다.

본격적인 협상태이들은 10일부터 차려진다. FA를 선언한 선수는 10일부터 16일까지 원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갖게 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23일까지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타구단과 만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선수는 이후 내년 1월15일까지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1월15일까지 계약을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3시즌 그라운드에서 나설 수 없다.

한편 FA 자격의 경우 타자는 매 시즌 페넨



유동훈

김원섭

이현곤

트레이스 경기수의 3분의2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 3분의2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2006년 이후 입단한 선수부터는 등록일수 로만 FA 자격을 산출해 페넨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인 경우 1시즌으로 간주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는 각 조건을 8시즌 채우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T,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선언

### 경기도 수원 연고

통신업체 KT가 경기도 수원과 손잡고 6일 프로야구단 창단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월부터 본격적인 10구단 창단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KT와 수원시의 10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KBO는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구단 증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구규약 8조에는 '구단을 신설해 회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액의 가입

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KT가 10구단이 되기 위해선 이

사회의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KBO는 또 지난해 2월 이사회에서 ▲모기업의 유동비를 150% 이상과 부채비를 200% 이하 ▲자기자본 순이익을 10% 이상 이거나 당기 순이익의 1000억원 이상 ▲불입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 설립 ▲5년 이내 2만5000석 이상 전용구장 보유 ▲가입금 및 야구발전기금(총 50억원 이상) 납부 ▲5년간 예치금 100억원 등을 신생구단 자격으로 추가했다.

올 겨울동안 창단 기업과 연고지가 결정되면 제10구단은 2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시즌부터 1군리그에 합류한다. /연합뉴스

## '야생마' 이상훈 복귀 고양 원더스 투수코치로

'야생마' 이상훈(41·시진)이 독립구단인 고양 원더스의 투수 코치로 8년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고양 원더스 구단 관계자는 6일 "이상훈 코치를 투수 코치로 영입했다"면서 "이 코치는 5일 구단을 방문해 계약했으며 17일 제주도 전지훈련부터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코치는 10년 만에 스승 김성근 감독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가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 정동진 나산사 휴휴암 주문진 어시장 기차여행

정동진 기차여행 (무박2일) 광주역 출발

정동진은 세계적으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배경지로 인기를 끌면서 매년 끊이지 않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주요 코스는 정동진 해수욕장/ 모래시계/ 고현정 소나무/ 정동진 시비 관광과 동해바다를 한눈에 내려 보이는 천년고찰이자 국내최고의 기도발원처인 나산사를 비롯해 '쉬고 또 쉬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 휴휴암, 동해안의 싱싱한 수산물에 맛볼 수 있는 주문진 어시장 등을 여행하게 된다.

**여행비**

성인 83,000원  
경로 82,000원  
소인 73,000원

**출발일**

11월 30일 22시경 광주역 출발

**여행코스**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입장료, 식식(도시락), 여행자보험